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 Vol.18

발행일 2026. 11. 15. **발행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편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대학생 주거 걱정 한 걸음 덜기 : 행복기숙사부터 '긱사'까지

이현민 한국사학진흥재단 학생주거지원부장, **성열환**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통계분석부장

-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10년 15.4%에서 2026년 20.2%로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 1인형 기숙사 증가 등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설립유형·학교급·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남.
-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금을 활용한 행복기숙사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으로 대학생의 주거 선택지를 넓혀 왔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전국 대학(일반대·전문대) 기숙사 수용률은 2010년 15.4%에서 2026년 20.2%로 4.8%p 상승하였으나, 국·공립대(27.1%)와 사립대(18.6%), 지방권(24.4%)과 수도권(17.5%)·서울권(13.1%) 간의 수용 여건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012년부터 사학진흥기금 1조 4,328억 원 지원을 통해 총 77개 사업·5만 2,220명 규모의 행복기숙사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행복기숙사의 월 기숙사비는 사립형 평균 약 26만 원, 연합형 약 30만 원으로 서울 대학가 원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나아가 모바일 기숙사 정보 플랫폼 '긱사'를 통해 파편화된 전국의 대학생 기숙사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캠퍼스는 배움의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본가를 떠나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등록금 못지않은 현실적인 고민거리다. 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명목 등록금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학가 인근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는 대학생들에게 사실상의 '제2의 등록금'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학생 주거, 왜 정책 과제인가?

부모와 떨어져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주거비는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와 공과금이 필요하고, 처음 방을 구할 때는 보증금도 마련해야 한다. 방값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더라도 통학 시간이 길어지거나 생활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 가격만으로 거처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2026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보증금 1,000만 원, 전용면적 33㎡ 이하 기준)을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 평균 월세는 62만 5천 원으로 1년 전(58만 1천 원)보다 7.6% 올랐다.

평균 관리비도 7만 5천 원에서 8만 4천 원으로 12.0% 상승해,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한 달 주거비는 70만 9천 원에 이른다. 1년 새 5만 3천 원이 늘어난 셈이다.

표 1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관리비 변화

(단위: 만 원)

구분	2025년 7월	2026년 7월	증감
평균 월세(A)	58.1	62.5	4.4(7.6%)
평균 관리비(B)	7.5	8.4	0.9(12.0%)
합계(A+B)	65.6	70.9	5.3(8.1%)

출처. 다방(2026.8.11.) 보도자료(세계일보 2026.8.11.)

이처럼 높은 주거비 부담은 학생들의 일상과 학습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 장시간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전공 학습이나 취업 준비에 투입할 시간을 빼앗기게 되며,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거나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의 주거 환경을 선택하기도 한다.

결국 대학생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기숙사를 충분히 공급하는 일은 단순한 거주 공간의 제공을 넘어,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의 성장 기반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국 대학의 기숙사 현황

대학생 주거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08년 도입된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해 매년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 현황과 기숙사비 납부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되는 '기숙사 수용률(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비율)'은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핵심 정량지표로 활용되며,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와 대학이 기숙사 확충 목표를 수립하는 기초 데이터가 되고 있다.

전국 대학의 기숙사 공급 규모와 수용 여건은 지난 17년간 어떻게 달라졌을까? 대학정보공시 기준(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 각종학교 제외)으로 집계된 2010년~2026년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추이와 학급별(대학·전문대학)·설립별(국·공립·사립)·지역별(서울권·수도권·지방권) 특성을 살펴보겠다.

1) 최근 17년간(2010~2026년) 전체 기숙사 수용 규모 및 수용률 추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집계한 전국 대학(원격대학·대학원대학·방송통신대·각종학교 제외)의 기숙사 수용률은 2010년 15.4%에서 2026년 20.2%로 4.8%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재학생은 213만 8천 명에서 198만 6천 명으로 7.1% 줄었지만, 기숙사 수용인원은 32만 9천 명에서 40만 2천 명으로 7만 3천 명(22.4%) 늘었다. 다만 수용률은 2022년 21.9%를 정점으로 네 해 연속 낮아지고 있다. 2022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 증가 등으로 인한 재학생은 6만 9천 명 늘어난 반면, 매년 지속적인 기숙사 확충에도 기존의 3·4인실의 기숙사를 1·2인실 기숙사로의 전환 등으로 수용인원은 1만 8천 명 줄었기 때문이다. 양적 확충에서 거주 여건의 질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볼 수 있다.

표 2 2010~2026년 대학 기숙사 수용률 추이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2026년
재학생(명)	2,138,455	2,199,691	2,215,970	2,123,382	2,056,209	2,022,820	1,917,143	1,906,260	1,986,263
수용인원(명)	328,566	354,247	375,794	397,353	414,771	422,567	420,579	407,295	402,095
수용률(%)	15.4	16.1	17.0	18.7	20.2	20.9	21.9	21.4	20.2

주1.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 각종학교 제외

주2. 재학생 수 : 2026. 4. 1. 기준 학부(주간+야간) 및 대학원(주간) 재학생 수
수용인원 : 2026. 4. 1. 기준 학교 밖 행복기숙사·대학생 연합생활관·창업지원형 기숙사·글로벌 교류센터, 청년주택(개봉동, 독산동) 수용인원(학교 추천입사생에 한함) 및 학교 기숙사 건물대장에 기재된 수용 가능 인원 수(총장·교직원·일반인 등이 사용하는 기숙사 수용분은 제외)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2026년 대학정보공시지침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학급별·설립별·지역별 기숙사 수용 격차 분석

설립별(국·공립 vs 사립) : 2026년 기준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7.1%에 달하는 반면, 사립대학은 18.6%로 국·공립대학보다 8.5%p 낮게 나타났다. 사립대학 재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80.6%(국·공립대 재학생 385,190명, 사립대 재학생 1,601,073명)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용률은 10%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학급별(대학 vs 전문대학) : 2026년 기준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7%인 반면, 전문대학은 14.2%로 대학과 전문대학 간 7.5%p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17년간 대학의 수용인원이 72,401명 늘어나는 동안 전문대학은 1,12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서울권·수도권 vs 지방권) : 2026년 기준 지역별 수용률은 지방권 24.4% 〉 수도권(경기·인천) 17.5% 〉 서울권 13.1% 순으로, 지방권과 서울권 간 11.3%p의 격차가 나타난다. 지난 17년간 서울권 수용인원이 36,115명에서 60,932명으로 68.7%, 수도권이 44,190명에서 74,327명으로 68.2% 급증하며 기숙사 수용률을 끌어올렸음에도, 전체 재학생의 44.9%가 밀집한 범수도권(서울+수도권)의 기숙사 수용인원 비중은 전체의 33.6%에 그치고 있다. 이는 높은 지가와 부지 부족, 인근 주민민원 등에 따라 개별 대학이 기숙사를 짓기 어려운 서울·수도권의 여건을 고려할 때, 국·공유지를 활용한 연합형 기숙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이 왜 핵심 해법인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2010~2026년 설립별·학급별·지역별 대학 기숙사 수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2026년
전체		15.4	16.1	17.0	18.7	20.2	20.9	21.9	21.4	20.2
설립별	국·공립	20.1	20.8	21.8	23.4	26.0	27.2	28.0	27.7	27.1
	사립	14.2	15.0	15.8	17.6	18.8	19.4	20.5	19.8	18.6
학급별	대학	16.7	17.5	18.3	20.2	21.7	22.2	23.1	22.6	21.7
	전문대학	10.9	11.3	12.1	13.1	14.4	15.1	17.1	16.1	14.2
지역별	서울권	8.0	9.5	9.6	10.8	12.5	13.5	13.5	13.3	13.1
	수도권(경기·인천)	11.0	12.8	14.1	15.0	17.2	17.5	18.9	18.9	17.5
	지방권	19.3	19.5	20.4	22.8	24.0	24.9	26.5	25.7	24.4

주.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 각종학교 제외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알아보기

1) 행복기숙사, 누가 어떻게 만들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끌어올리고 서울·수도권의 만성적인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교육부·국토교통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12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대표 정책이 바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이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금인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숙사를 건립·운영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2) 같은 주거 지원, 행복기숙사 유형에 따라 무엇이 다를까?

행복기숙사는 부지와 이용 대상, 공급 방식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세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행복기숙사(사립)는 사립대학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해당 대학 학생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대학의 교육환경과 연결된 주거공간을 확충한다는 특징이 있다.

행복기숙사(연합)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여러 대학의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다. 국립·공립·사립이라는 학교의 설립유형을 넘어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한다. 개별 대학이 부지 부족 등으로 자체 기숙사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최근 확대하고 있는 유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기존 완공 건물을 활용해 소규모·분산형 기숙사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대규모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과 달리, 기존 주택을 대학생 등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한다.

이 밖에 대학이 민간자금으로 지은 민자기숙사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공공기금으로 바꿔 주는 에듀21처럼 기숙사비 인하를 돕는 간접 지원 유형도 있다.

표 4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2026년 9월 기준)

구분	사업내용	사업수	수용인원	사학진흥기금 지원액
행복기숙사(사립)	사립대학 부지에 해당 대학 학생용 기숙사 건립·운영	53	26,100명	8,016억 원
행복기숙사(연합)	유휴 국·공유지에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쓰는 기숙사 건립·운영	11	9,275명	3,720억 원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존 건물을 활용한 분산형 소규모 기숙사 운영	2	333명	68억 원
에듀21(대환대출)	사립대 민자기숙사의 고금리 민간자금을 저금리 공공기금으로 대환	11	16,512명	2,524억 원
합계		77	52,220명	1조 4,328억 원

주. 사업별 협약 기준 수용규모로,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수나 실제 입주인원과 다를 수 있음. 개관 예정, 사업 종료, 상환 완료·운영방식 전환 사업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3) 지원 규모는 어떻게 늘어왔을까?

행복기숙사(사립 및 연합)의 연도별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12~2015년에 사립형 28개 사업(13,715명)과 연합형 3개 사업(홍제 516명, 부경대 1,528명, 동소문 698명)이 집중 지원되어 행복기숙사의 기틀을 다졌으며, 이후에도 매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인여대('26. 9. 개관, 403명)와 한국체대 연합기숙사('26. 3. 개관,

704명)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2027년에는 대경대 남양주(252명), 용인대(400명), 부천대(200명), 아주대(990명), 인하대(1,810명) 등 사립 행복기숙사와 서울과기대(1,020명), 인천대(816명) 등 연합 행복기숙사가 잇따라 개관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 및 대형 대학의 기숙사 수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4)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을까?

세 유형의 누적 지원 이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5개 사업·7,243명, 경기가 12개 사업·5,854명, 부산이 5개 사업·4,812명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 행복기숙사의 수용규모는 1만 6,426명으로 전체의 46.0%를 차지한다.

수도권 밖에서도 지역 대학의 사립형 기숙사와 연합형 기숙사를 통해 공급 기반이 마련되어 왔다. 연합형 사업에는 부산의 부경대, 충남의 천안, 대구, 세종 공동캠퍼스 기숙사가 포함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서울 개봉동 144명, 독산동 189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표 5 지역별 누적 지원사업 및 수용규모

지역	사업 수(개)	수용인원(명)	지역	사업 수(개)	수용인원(명)
서울	15	7,243	강원	4	2,419
부산	5	4,812	충북	2	730
대구	5	3,217	충남	4	2,614
인천	4	3,329	전북	2	691
광주	1	210	전남	1	250
대전	1	164	경북	6	2,647
울산	0	0	경남	1	580
세종	1	500	제주	2	448
경기	12	5,854	**합계**	66	35,708

주. 사립형·연합형·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누적 지원 이력, 에듀21(대환대출) 사업 제외

5) 한 달 기숙사비는 얼마나 들까?

학생에게 가장 직접적인 관심사는 매달 부담하는 기숙사비다. 행복기숙사는 공공기금을 활용하지만 모든 시설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 건립·운영 여건과 호실 구성 등에 따라 기숙사비가 달라진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비수도권에 비해 기숙사비가 높으나, 서울권 대학가 원룸 평균(약 70만 원대)과 비교하면 수도권 행복기숙사의 주거비 절감 폭이 오히려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6 권역별 유형별 평균 행복기숙사 월 기숙사비 현황

(단위: 천 원)

권역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	287.8	334.4	304.5
수도권(경기·인천)	282.3	-	-
지방권	250.3	283.2	-
전국 합계	263.7	305.1	304.5

주. 상환완료·직영전환·사업종료, 공사 중인 사업, 에듀21(대환대출) 사업 등을 제외한 2026년 각 메인실의 월 기숙사비 평균(보증금 제외) 기준

한편, 행복기숙사는 저렴한 기숙사비 책정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 장치도 촘촘히 갖추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개별 대학과 협약 지자체의 주거 장학금까지 더해지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낮아져,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복지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다.

표 7 2021~2025년 사회적 배려자 입주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입주인원 평균(명)	19,993	20,115	22,625	23,243	21,579
사회적배려자 입주인원 평균(명)	4,279	4,847	6,289	7,373	8,043
사회적배려자 입주비율(%)	21.4	24.1	27.8	31.7	37.3

주. 상환완료·직영전환·사업종료, 공사 중인 사업, 에듀21(대환대출) 사업 등은 제외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6) 지역과 함께 만드는 기숙사 어떤 모습일까?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숙사가 단순히 잠만 자는 '베드타운(Bed-town)'형 주거 시설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청년 지원 거점이자 지역 상생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행복기숙사는 지자체의 공유지와 행정·재정 지원을 결합해 학생 부담을 낮추는 '지·산·학·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대구 행복기숙사'(2023년 3월 개관, 1,000명 수용)는 대구광역시가 원도심 인근의 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비와 시비 등 총 451억 원(사학진흥기금 융자 313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지자체 협력형 복합기숙사다. 특히 건물 내부에 대구·경북 소재 대학생들의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소통·교류·진로 탐색·협업 플랫폼인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를 비롯해 취업·창업 지원 공간, 개방형 주차장,

카페·식당 등 주민 친화형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에게는 월 20만 원대의 기숙사 공급으로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는 동시에, 지역 청년들에게는 정책 정보와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청년 거점 공간으로, 원도심 주민들에게는 열린 생활 SOC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충남 천안의 '천안 행복기숙사'(2020년 3월 개관, 593명 수용) 역시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행복기숙사를 결합한 혁신 모델이다. 천안시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민간도시재생기금 1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하나의 행정복합타운 안에 천안 동남구청사, 어린이회관(천안어린이꿈누리터) 등과 같이 행복기숙사가 어우러지도록 건립되어 구도심 상권에 청년 유동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지난 14년여 동안 추진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전국 77개 사업장, 5만 2,220명의 대학생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우리나라 대학생 주거복지의 든든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숙사 시설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정작 수요자인 대학생과 학부모가 내 주변에 어떤 기숙사가 있는지, 기숙사비와 신청 자격은 어떠한지를 한눈에 찾지 못한다면 정책의 체감도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동안 대학별 직영·민자기숙사, 권역별 행복기숙사, 지자체 장학관 등의 모집 공고와 운영 정보가 개별 대학 홈페이지와 지점별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학생들이 입시와 개강 시점마다 수십 곳의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정보 탐색의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학생 중심의 스마트한 주거 탐색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대학 기숙사 통합 정보 플랫폼 '긱사'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맞춤형 기숙사 탐색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 걱정을 한 걸음 더 덜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긱사'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본다.

'긱사'로 한눈에 비교하기

1) 흩어진 기숙사 정보, 하나로 모으다

- 현재 기숙사 운영 현황은 대학알리미나 개별 대학 기숙사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부동산 정보 앱은 원룸·오피스텔 중심이어서 대학생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행복기숙사, LH 청년주택 등과 같이 공공이 공급하는 주거는 운영 기관마다 안내 창구가 달라 학생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기숙사 정보를 하나로 모은 모바일 앱 「긱사」를 개발하였다.
- 긱사는 '기숙사'를 줄여 부르는 대학생들의 일상어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긱사'를 검색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2) 긱사로 무엇을 볼 수 있나

- **기숙사 유형별 안내:**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대학 직영기숙사,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LH 청년주택 등 유형별로 정보 제공
- **통합 검색:** 지역명이나 대학명을 입력하면 해당 대학의 기숙사와 주변의 공공기숙사 정보를 한 번에 검색
- **기숙사비 현황:** 1인실·2인실·4인실 이상 등 호실 유형별 수용 가능 인원, 실 수, 월평균 기숙사비를 표 형태로 제시
- **시설 안내:** 기숙사별 사진과 함께 호실 내 비치 가구, 화장실·샤워실 등 시설 정보 제공



앱 메인 화면



개별 대학 기숙사 선택



대학 기숙사 개요



기숙사별 시설 안내

3) 정보 제공을 넘어 '기숙사 생활 플랫폼'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긱사를 단순한 정보 제공 앱에서 기숙사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6년 단기·유입력 강화
- 대학 생활관 홈페이지에 긱사 링크 게재
- 한국장학재단 기숙사·LH 청년주택까지 정보 확대
- KASFO 서포터즈를 통한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캠퍼스 홍보

2028년 중기·편의기능 확대
- 학생 주거 실태조사를 앱 기반으로 전환
- 행복기숙사 입사생 QR코드 출입통제
- 대중교통·편의시설·치안 등 주변 생활정보 연계

2030년 장기·데이터 연계·고도화
- 행복기숙사비 앱 내 결제
- 입사·퇴사·외박 신청 앱 처리
- 3D 입체 시설정보
- 공실 발생 시 실시간 추가모집 매칭

특히 실시간 공실 정보와 추가모집 매칭 기능이 구현되면, 학기 중 발생하는 빈 방을 필요한 학생에게 신속하게 연결해 기숙사의 운영 효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걱정, 한 걸음 더 덜어내려면

기숙사 한 자리는 대학생에게 한 달 40만 원 안팎의 주거비와 보증금 걱정을 덜어 주는 것 이상이다. 통학에 쓰던 시간을 학업과 진로 준비에 돌려주고, 낯선 도시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 준다. 국가장학금이 등록금의 벽을 낮춰 왔듯, 행복기숙사는 지난 14년 동안 주거의 벽을 조금씩 낮춰 왔다. 그러나 서울권 기숙사 수용률 13%라는 숫자가 보여 주듯 갈 길은 아직 멀다. 유휴 국·공유지와 지자체의 참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처럼 '부지'의 한계를 넘는 다양한 공급 방식이 더해질 때 대학생의 주거 걱정은 한 걸음 더 덜어질 것이다. 학생들이 방을 구하는 걱정을 조금 덜고 배움과 성장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돕는 것, 행복기숙사가 지향하는 역할도 여기에 있다.

이번 겨울 다음 학기 살 곳을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긱사"앱을 통해 소속대학과 지역의 행복기숙사부터 먼저 살펴보기를 권한다. 행복기숙사별 현황과 입주 안내를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누리집(https://happydorm.or.kr)과 공식 홍보채널인 인스타그램(@happydorm_official)에서 알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 수용현황(2010~2026)
- 세계일보(2026.8.11.). '원룸 월세 63만원, 관리비 8만원… 한숨 깊어진 대학생', 다방의 대학가 원룸 분석 결과 재인용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